고유가·미 쇠고기 개방 파고 넘는 농촌현장을 가다

"질 좋은 한우·소비자 직거래 승부"

■ 나주 화탑영농조합

나주시 세지면 화탑영농법인 조합원들이 지난 8일 한우직판장에서 한우쇠고기와 상추 등 농축산물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인 설립 한달 1억4천 매출

일반 상품 3분의 1 가격 인기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논란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나주의 한 마을이 한우영농조합을 설립, 질 좋은 한우고기를 공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화탑(花塔)마을 주민 81명은 지난 4월 3천500만원의 출자금을 모아 '화탑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 주민 1명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출자했다.

화탑법인은 강진·해남 등지에서 구입한 3년생 미만의 암소를 도축한 뒤 판매에 나서 법인설립 한달을 넘기기도 전에 1억4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간유통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의 직거래를 통해 판매가격을 일반 상품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끌어내린 전략이 주효했다. 생고기(600g)가 1만8천원, 등심이 2만8천원에 불과한데다, 마을에서 나는 고추·상추 등 청정 부재료까지 푸짐하게 제공한 것도 한몫했다.

나주시는 4억원의 시비를 제공해 판매장·조리실·체험장 등을 갖춘 한우직판장을 설립,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화탑법인은 올 연말부터 한우 사육장을 조성, 어린 암소를 키워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다.

김종원(65) 화탑마을 이장은 "한우직판장은 우리 마을이 개방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수준높은 한우쇠고기를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화순 축산농 홍일주씨

"쌀겨 등으로 수입사료 대체

올 소 사육 두배로 늘리겠다"

28년차 농군 홍일주(55·화순군 도곡면 평리)씨는 26마리의 한우 사육두수를 올 말까지 50마리로 늘리는 '모험'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고유가의 악재에 미국산 수입쇠고기 파동으로 산지소값과 판매량마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홍씨의 '모험'은 자칫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홍씨는 '최고급 한우를 만들어내면 미국산 수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로, 역주행을 감행하기로 했다.

홍씨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료만으로 사육해야 진정한 한우(韓牛)"라며 "16만5천여㎡(5만여평)에 총체보리를 심어 자가사료 사용량을 크게 지난해에 비해 두배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 총체보리에다 19만8천여㎡(6만여평)의 벼농사에서 나오는 쌀겨를 숙성시켜 사료를 만든 결과, 소의 건강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매달 80만~90만원 들어가던 수입산 사료값도 절반으로 줄었다. 1~2년 후 수입사료 전량을 자가사료로 대체한다는 게 홍씨의 계획이다. 홍씨는 "좋은 소를 생산해내면 판로는 걱정없다"면서 "지난해에만 20여 마리를 출하, 마리당 100만원의 순이익을 남겼으니 연간 50마리를 팔면 5천만원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까지 화순 동복농협 계통출하를 통해 서울 가락동시장에 한우를 출하하고 있는 홍씨는, 홈페이지와 지난 2002년 결연한 서울 강동구 등촌동 아파트 부녀회를 활용해 판로를 개척해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저가·프리미엄급 상품 개발 지역 친화경영 최선 다할 것"

취임 100일 광주신세계 이장환 대표

지난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주)광주신세계 이장환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친화경영을 더욱 강화, 명실상부한 지역기업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백화점·이마트·패션스트리트 등을 한데 묶어 광주신세계타운을 조성한 것을 계기로, 고객들에게 저가상품과 프리미엄급 상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호남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95년 법인설립과 함께 장학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역상품 판로확대 등 4대 친화사업을 전개해왔다.

지난해에는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제 1회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을 진행, 6개 중소기업을 입점시켜 지역과 상생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 대표는 "이는 중소기업에게 우수제품 발굴의지를 북돋워주는 한편 지역 기업이 전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아 타이거즈와의 제휴마케팅, 소년소녀가장돕기 바자, 환경사랑바자 등을 통해 지역 친화경영을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비스 쇄신을 기반으로 한 '고객만족'이야말로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제 1의 경영원칙"이라며 "광주신세계가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통업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토공 광주전남본부 "주공과 통합 반대"

정부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을 추진중인 가운데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등 토공 산하 각 지역본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토공 광주전남본부는 9일 양 기관이 통합될 경우 동반부실의 우려가 큰 데다 혁신도시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통합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토공은 10일 오후 3시 나주에서 열리는 '혁신도시 건설 촉구 전국대회'에 40여명의 직원들을 참석시켜 통합 반대 입장을 알리기로 했다.

특히 토공은 이날 행사에서 양 기관이 통합되면 나주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민들과 지역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토공은 또 이날부터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주공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토공 산하 각 지역본부도 이날 지역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한우석 토공 광주전남본부장은 "두 기관이 통합하면 거대 부실 공기업 출범으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혁신도시 등 현안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명분없는 통합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호, 주거·호텔 복합 '갤러리 303' 분양

금호건설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 신개념 미래주거단지인 '갤러리 303'을 분양중이다. 〈조감도〉

'갤러리 303'은 신개념 구조와 디자인 설계를 적용한 광주 최초의 '주호(주거+호텔)' 복합단지로, 문화감성형 주거와 글로벌 비지니스를 함께 영위할 수 있다.

지하 2층, 지하 15층 규모로 총 364세대가 공급되며, 단지 및 개별 세대의 디자인에 연극·예술·음악적 요소를 가미했다. 영국, 프랑스, 뉴욕의 감성과 감각을 새롭게 해석한 '브리티쉬 하우스', '프렌치 메종', '뉴욕 로프트' 등 3가지 주거스타일에 따른 18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호텔부문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인터콘티넨탈그룹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62-511-1711.

보해 복분자주 홍콩·아르헨티나 간다

내달부터 … 세계 와인박람회 참가 수출 계약 성과

보해 복분자주가 지난 5월 홍콩에서 열린 세계와인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다음달부터 홍콩과 아르헨티나 수출길에 오른다.

지난달 27~29일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8 빈엑스포 아시아-태평양 전시회'에 참가한 보해 복분자주와 매취순은 진한 맛과 아름다운 빛깔로 와인마니아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특히 홍콩의 한국식품사와 아르헨티나의 네오지오사는 "보해 복분자주를 한국 전통 도자기 곡선미를 추구한 매끄러운 외형과 함께 한국 복분자주만의 진한 맛과 향, 와인 특유의 붉은 빛깔이 잘 살아있는 신비스런 와인"이라 평가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보해 관계자는 "홍콩과 아르헨티나와의 수출계약은 보해 복분자주가 세계적인 명품와인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 와인의 무궁무진한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유명 와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유럽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국민연금 이사장 박해춘씨 내정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석이던 국민연금공단의 새 이사장에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사진〉을 단독후보로 압축,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 이사장에 민간 금융계 출신이 내정된 것은 창립 20년만에 처음이다.

박 전 행장은 서울보증보험, LG카드 사장과 우리은행장 등을 지낸 금융 전문가다.

/연합뉴스

■ 새얼굴

"투명회계로 지역발전 기여"

손 창 환 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장

"공인회계사회가 투명한 회계를 통해 지역민의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일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지회장에 연임된 손창환(51)씨는 "본회와 협력을 통해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국제화 시대를 맞아 회원들이 전문지식과 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숭일고와 전남대 상대를 졸업한 손 회장은 현재 공인회계사 손청환사무소 대표, 조선대학교 감사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부인 이희강씨와의 사이에 1남 1녀.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